

수월루중건전말소기(水月樓重建顛末小記)

1974_김은영(金殷永) 지음_48.0×121.0cm



1849년(헌종 15) 수월루가 창건되고 두 차례 화재로 전소되고 1974년에 중건된 내역에 대한 기문이다. 특히 1974년 중건에 소요된 비용의 재원 마련과 경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화식이 작성한 「수월루중건기」와 비교하여 중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해당 기문은 김광필의 후손인 김은영(金殷永)이 지었다.

水月樓重建顛末小記

凡物之廢興成毀固大數之使然而相尋於無窮者也雖然其興其成亦在於人爲之如何則惡可專談於數而不思所以圖置之方乎哉惟我道東院水月樓卽士子舒神休情之所則有是院而不可無是樓者明矣樓之創建以凝窩李公所撰上梁文推之則在於憲廟己酉歲者似無疑矣繼閱十五星霜而遽爲融魔所燬隨卽修補於哲宗癸亥而定軒李公撰重建梁頌至高宗戊子竟不免於全燼而世仍舊桑國社爲屋所謂爲士者舉皆惴惴然自躬之猶不聞奚違於斯樓之復舊哉任於葵萎之飄搖者歲月久而使過者太息而已何幸天佑吾東國復而庶政就緒以至忠賢之祠院可謂在在張廓而亦極傾念於是院神宮與堂齋既一切新之仍及於樓役始於癸丑九月竣於全年之十二月計日數則一百有奇也所入貲則五百萬金也規制則四架三間而左右同也始終旋力者則文敬公愔嗣秉義暨其族叔時永本倅李相浩也於是乎哈哈敵煥澄江映檻妍峯描簷無復荒煙淒露之減沒於蒼茫登覽之食章甫皆魂怡目滿如入於閬苑別界是豈非成興之亦在於人爲者歟誠感慨無量也迺者院儒諸公以殷永之亦有與相於是役命之以詳記其本末以告來者故遂不揆妄率敢敘梗槩之如右而若夫水月之義則已有鄭斯文華植之記故不贅焉

樓君紀元四千三百七年甲寅仲春 文敬公后孫 殷永謹記

수월루 중간전말 소기[水月樓重建願末小記]

무릇 사물이 폐하고 흥하며 이루어지고 훼손되는 것은 실로 큰 운수가 그렇게 하도록 하여 끝없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흥하고 이루어지는 것 또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으니, 어찌 오로지 운수에 맡겨두고서 오래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컨대 우리 도동서원의 수월루는 바로 선비들이 정신을 펼치고 성정을 쉬게 하는 곳이니, 이 서원이 있으면서 이 누가 없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수월루가 창건된 것은 응와(凝窩) 이공(李公)이 지은 상량문으로 미루어보면 현종 기유년(1849, 현종 15)에 있었던 것은 의심이 없을 듯하다. 겨우 15년을 지나 갑자기 용마(融魔)에게 타버리게 되었다. 바로 철종 계해년(1863, 철종 14)에 수리하였고 정헌(定軒) 이공(公擴)이 중건 상량문을 지었다. 고종 무자년(1888, 고종 25)에 이르러 마침내 완전히 타버리게 됨을 면치 못하였는데 세대가 그대로 변해버렸고 나라가 망해 버렸으니, 이른바 선비라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몸도 오히려 돌보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 수월루를 회복할 경황이 있었겠는가. 규맥(葵麥)에 흔들리는 대로 맡겨둔 것이 세월이 이미 오래 되자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탄식하게 하였다.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도와 우리나라가 회복되어 여러 정치가 정돈되었고, 충현(忠賢)들의 사원(祠院)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확장하면서 또한 생각을 지극히 기울였다고 할 만하다. 이에 이 서원의 신궁(神宮)과 당재(堂齋)를 이미 일체 새롭게 짓고, 이어서 수월루의 공역에 미쳤으니, 계축년(1973) 9월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하였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100여일이 걸렸고, 들인 재물은 500만 금이고, 규모와 제도는 네 기둥의 4칸인데 좌우가 같다. 시종 힘을 쓴 사람은 문경공(文敬公)의 주손(嗣嗣) 병의(秉義) 및 그 족속 시영(時永), 본 군수 이상호(李相浩)였다.

이에 서원하게 높고 환하여 맑은 강이 난간에 비치고 아름다운 봉우리가 처마에 달아 다시는 황폐한 안개나 처량한 이슬이 창랑한데 매몰하는 것이 없었다. 올라 구경하는 여러 선비들이 모두 혼이 기뻐하고 눈이 씻긴 듯 마치 낭원(朗苑)의 별천지에 들어간 것 같았으니, 이것이 어찌 이루고 흥하는 것 또한 사람이 하는데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감개무량하다.

이에 서원의 여러 선비들이 내(殷永)가 또한 이 일에 도운 것이 있다는 것으로, 명(命)하여 그 본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후손에게 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드디어 명령되고 경술함을 헤아리지도 않고 감히 대강을 위와 같이 서술하고, 수월(水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사문(斯文) 정화식(鄭華植)의 기문이 있기 때문에 덧붙이지 않는다.

단군기원 4307년 갑인(1974) 중춘에 문경공 후손 은영(殷永)은 삼가 기록한다.